

이색대회·문화공연...순천만정원박람회 추석 행사 다채

노래자랑·딱지 경합·립보왕 선발·막춤대회 우승자 다양한 경품 어린이동물원 앵무새와 사진찍기·습지센터 메타버스 게임 체험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역만 숲이 국화정원을 선보이며 추석 연휴 관람객 모시기에 나섰다.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연휴가 시작하는 오는 28일부터 10월3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 호수정원 공연장에서 매일 이색대회가 잇달아 열린다고 25일 밝혔다.
이곳에서는 관람객 노래자랑인 '나도 노래 잘함'(28일)과 '우주최강 엄마 팔씨름 대회'(29일) '전국 어린이 포켓몬 딱지 경합'(30일) '정원 발롱도르, 주인공은 나야'(신발 던지기:10월1일) '홀라후 프랑-립보왕 선발대회'(2일) '관람객 막춤 대회'(3일) 등이 펼쳐진다.
행사는 매일 오후 2시에 시작한다. 국가정원을 찾아온 관람객이라면 아이와 어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색대회 우승자에게는 다양한 경품을 준다. 지난 8월 태어난 아기사슴원숭이 '정몽순'과 함께 사진을 찍으면 몽순이를 새긴 열쇠고리를 주는 행사도 진행한다.

오는 28일부터 10월2일까지 2시간 국가정원 어린이동물원에 있는 몽순이와 사진을 찍어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면 하루 선착순 90명에게 원숭이 열쇠고리를 준다.
같은 기간 어린이동물원에서는 앵무새, 알파카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행사가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두 차례씩(선착순 20개 팀) 열린다. 알파카 먹이 주기 체험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할 수 있다. 먹이 비용은 1000원이며, 하루 70개 한정 판매한다.
오는 30일 국가정원 안에 있는 한방체험센터에서는 '건강·힐링'을 주제로 사상체질검사서와 인삼모종 심기 등 체험을 할 수 있다.
박람회 조직위는 '온라인 플랫폼' '루미오와 동리엿을 찍어라' 등 비대면 경품 행사도 소셜미디어에서 진행하고 있다.
순천만국제습지센터는 오는 30일부터 10월1일까지 '메타버스 게임 체험관'을 운영한다.
가상현실(VR) 기기 '미로정원 대탈출' '우리로 만든 꿈의다리 건너기' '정원 속 보물찾기' 등 3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추석 연휴 기간(9월27일~10월3일) 박람회장 곳곳에서 이색 대회와 문화 공연을 펼친다. <순천시 제공>

가지 놀이를 무료로 즐길 수 있다.
놀이 1개당 5분간 즐길 수 있으며, 상주 직원들이 기교 작문법을 안내한다.
오는 27일부터는 무료 입장할 수 있는 오전그린광장에서 일주일 내내 문화 공연이 펼쳐진다.

TV 경연 예능 '팬텀싱어3' 우승자인 크로스오버 그룹 '라포엠'(27일 오후 8시) 공연을 시작으로, 박람회 주제공연 '카이로스'(28일 오후 8시), 김연우 단독 공연(29일 오후 7시), 특집 포크콘서트(30일 오후 7시), 가을밤 힐링 콘서트(10월1일 오

후 7시), '트랄라라 브라더스' 공연(2일 오전 11시), 이승환 단독 공연(3일 오후 7시) 등이 무대를 꾸민다. 국가정원 곳곳에서는 마술 등 상설 공연도 함께 열어 추석 연휴 풍성한 볼거리를 선보인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고흥군 우주발사체 산업집적단지 조성사업 순항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구축 예타 면제 확정...2400억원 확보

고흥군의 우주발사체 산업집적단지 조성이 순항하고 있다.
고흥군은 지난달 23일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총괄위원회에서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최종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는 민간 전용 발사장과 발사체기업 원스톱 지원을 위해 구축된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고흥군은 2400억원의 예산 확보하게 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고흥군은 국가우주위원회 '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됐다.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집적단지) 조성사업은 국내 유일 발사장인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사업으로, 민간발사장 구축과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이 이 사업에 포함된다.
우주발사체 산업집적단지 조성에는 오는 2031년까지 약 1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고흥 나로우주센터 인근 172만9176㎡(약 52만 평)에는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다.



공영민 고흥군수가 지난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확정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 초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 5월18일 고흥군은 국토교통부와 전남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남개발공사와 국가산업단지 성공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맺었다. 이들 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통과를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발사체 주도(엔지니어링) 기업과 벤처·신생기업 기업유치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한국판 케네디우주센터라 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 사이언스컴플렉스'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이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획·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했다. 이 사업을 통해서도 누리호 궤단우발사의 꿈을 이뤄줄 우주과학 교육·체험시설을 구축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10년 후 고흥 인구 10만 계획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된다면 발사체 기업들의 집적화도 고흥군이 명실상부 우주발사체 산업의 중심지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핵심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보성군, 추석 명절 대비 '가축 전염병 차단' 특별 방역 27일·10월 4일 '소독의 날'

보성군이 추석 명절 고향원성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보성군은 빈틈없는 방역 관리를 위해 연휴 기간 특별 방역 대책 상황실을 편성해 비상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 전(9월27일)과 후(10월4일) '일제 소독의 날'을 지정해 축협 공동방제단 등 모든 소독자원을 동원해 축산시설과 농장의 전면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방역 취약 지역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읍·면 지정 계시대와 버스터미널, 역 등에 방역 관련 현수막 게시를 통해 귀성객 등이 가축 사육 시설 및 농장 방문을 자제하도록 하고, 축산농가와 축종별 단체에도 SNS, 마을 방송 등을 통해 필요한 방역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10월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의 특별 방역 기간 동안 특별 방역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상황 유지, 보고, 조동 조치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할 계획이다.
현재 보성군은 7명의 공동방역수의사로 이뤄진 가축 질병 예방반을 운영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추석 연휴 및 특별 방역 기간에 대비해 축산농가의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 등에는 공동방제단 소독 지원 등을 통해 취약지역 방역 등에도 발 빠르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은백 기자 kyb@kwangju.co.kr



2026여수세계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여수시 공화동) 사무실 앞에서 지난 23일 정기명(왼쪽 네번째) 여수시장과 관계자들이 개소를 축하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수세계박람회 범시민준비위 사무실 개소

7개 분과 365명 구성 3월 출범

민간단체인 준비위는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시민 역량을 결집하는 역할을 한다.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시민 실천 운동과 대내외 박람회 홍보, 관람객 유치 활동 등에 힘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개소식에서 "섬박람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민간영역에서 섬박람회 대 한 시민의 공감대를 만들어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사무실 개소와 더불어 범시민위원회 활동이 더욱 탄력을 받아 섬박람회의 성공개최를 견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정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광양제철소, 백운아트홀 등 경관 조명 설치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이진수)가 광양시 어울림체육관과 백운아트홀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지난 7월 백운아트홀, 백운플라자 및 어울림체육관에 경관 조명 설치를 위해 공사를 시작했으며 최근 준공했다.



불빛이 백운아트홀. <광양제철소 제공>

백운아트홀 등은 밖에서 보이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6억3000여만원을 들여 건물 테두리에 LED바(띠 조명)를 설치하고 외벽에 조명을 투사하는 방식으로 야경을 바꿨다.
경관 조명이 환하게 들어오자 금호동 주요 도로인 백운로를 기준으로 눈에 쉽게 띄는 높은 건물들이 더욱 밝아져 금호동 전체 야경이 화사하고 밝게 변화했다.
제철소는 임직원과 지역민들이 자주 애용하는 어울림 체육관에 활동적이고 스포티브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파란색 계열의 라인 조명과 투광등을 설치했다. 체육시설이라는 이미지와도 맞게 역동적인 조명이 투사됐다.
또 기업 시민 콘서트, 영화 상영 등으로 금호동 주민뿐만 아니라 광양시민들에게 문화생활 향유의 장소로 기능해 온 백운아트홀 야경도 변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백색 계열의 라인 조명과 투광등 설치로 아트홀 건물의 대리석 외벽이 주는 밝고 화사한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게 했다. 카페와 테라스 주변 수목 지역에 수목등을 설치해 즐겨 찾는 이용객들이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백운플라자의 경우 직원들의 기숙사 시설은 물론 야간경관 명소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투자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곡성물' 개장 2주 만에 매출 1억원 돌파

다음달 5일부터 기념 할인전

곡성군의 농특산물 소포몰인 '곡성물'이 개장 2주 만에 매출 1억원을 돌파했다.
이달 5일 문을 연 곡성물은 개장 2주가 된 지난 20일 매출 1억원을 넘겼다.
곡성물은 지역 89개 농가가 312개 품목을 선보이고 있다. 곡성군은 다른 소포몰보다 수수료를 크게 낮췄다.
이달 현재 52개 품목이 입점을 기다리고 있다. 곡성물의 인기 비결은 소셜미디어(SNS)와 육아 카페에서 품질에 대한 입소문이 난 덕분이다. 쌀과 과일 등 상품은 연일 품절을 기록하기도 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t@kwangju.co.kr

곡성군은 매출 1억원 돌파를 기념해 다음 달 5일부터 모든 상품을 20% 할인 판매한다.
매출 1억원 돌파를 축하하는 뜻깊은 단 회원 30명에게는 곡성 특산물 '백세미'를 증정할 예정이다.
오는 10월5일부터는 전 품목 20% 할인과 함께 기획전 '박람회 계절이 돌아왔다'도 진행한다.
곡성물 신규 가입 회원이라면 3000원 할인권도 받을 수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물 덕분에 참여 농가가 매출이 늘어 뿌듯함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단골이 늘 수 있도록 좋은 품질의 상품을 좋은 가격에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광양시 망덕포구서 해양쓰레기 5t 수거

광양시가 지난 23일 광양만 일대에서 수중 정화 활동을 벌여 해양쓰레기 5t을 치웠다.
광양시는 최근 해양환경인명구조단 광양구조대를 광양지역 하천-광양만 일대 수중 정화를 위한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해양환경인명구조단 광양구조대와 자원봉사자 50여 명은 지난 23일 망덕포구를 찾아 수중 정화 활동을 했다.
잠수 장비를 동원해 해안과 수중 해양쓰레기를 치운 결과 약 5t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집중 호우 때 바다로 떠밀려 온

쓰레기와 부유물 등을 집중적으로 치웠다.
앞서 이달 2일에는 대한민국특수수입무공자회 광양지부와 자원봉사자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양 무지개다리 일대에서 쓰레기 3t을 치우기도 했다.
황광진 광양시 환경과장은 "수중 정화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하천 해양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광양시는 수질 보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하천 해양 오염도 검사 실시와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